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
라"(출 20장 12절)

발행인 / 이종운,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구역공과

『충현다락방』

오늘부터 본보 4면에 게재

교구위원회(위원장/우기전장로)는 4월 정기당회의 허락을 받아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구역공과 「충현다락방」을 주간충현에 게재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주간충현」이 전교인 상대의 신문임을 감안 구역예배에 참석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간성경공부의 기회를 주는 한편 성도간의 교제가 더욱 원활키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쇄물의 과다증상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현 세계선교지
모형 전광판 제작

충현세계선교회(회장: 이종운목사)는 충현 세계선교지의 현장을 알리고 온 성도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세계전도 및 전광판을 제작키로 했다.

동 전광판에는 세계지도 모형 및 시계가 부착되며, 선교관 1층 오른쪽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다.

「구역전도상」 폐지
선발기준의 불합리성

교구위원회는 전도상 시상에 있어 년 2회 실시예정인 구역전도상을 폐지키로 했다.

그 이유는 구역전도상은 선정기준의 불합리성과 복잡한 심사요건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부득이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회내 모든 인쇄물
대외 의존은 가급적 억제

교회의 각위원회 산하 각 기관 및 부서의 인쇄물이 통제할 수 없도록 파다 또는 화려하

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침이 마련되었다.

기획실 안에 의하면 ①대외의 의존하는 모든 인쇄물은 가급적 억제한다. ②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주간충현」을 활용한다. ③특별히 대외에 알려야 할 인쇄물은 행정위원장(이태규장로)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④기타 각 부서가 필요한 유인물은 교회 인쇄실을 이용한다. ⑤필요 이상의 고급지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의료전도회 활동보고

1개월간 내과 등 370명 진료

본교회 의료전도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간 내과, 외과, 소아과, 한방과에서 370명 진료활동을 펼쳤다.

각과별로 분류하면 내과에 141명, 외과에 7명, 소아과에 42명, 그리고 한방과에 180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산호교회 등 지원키로
남여전도회에서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지원교회 3군데를 선정하여 각지회로 하여금 재정 보조를 하기로 했다.

선임된 3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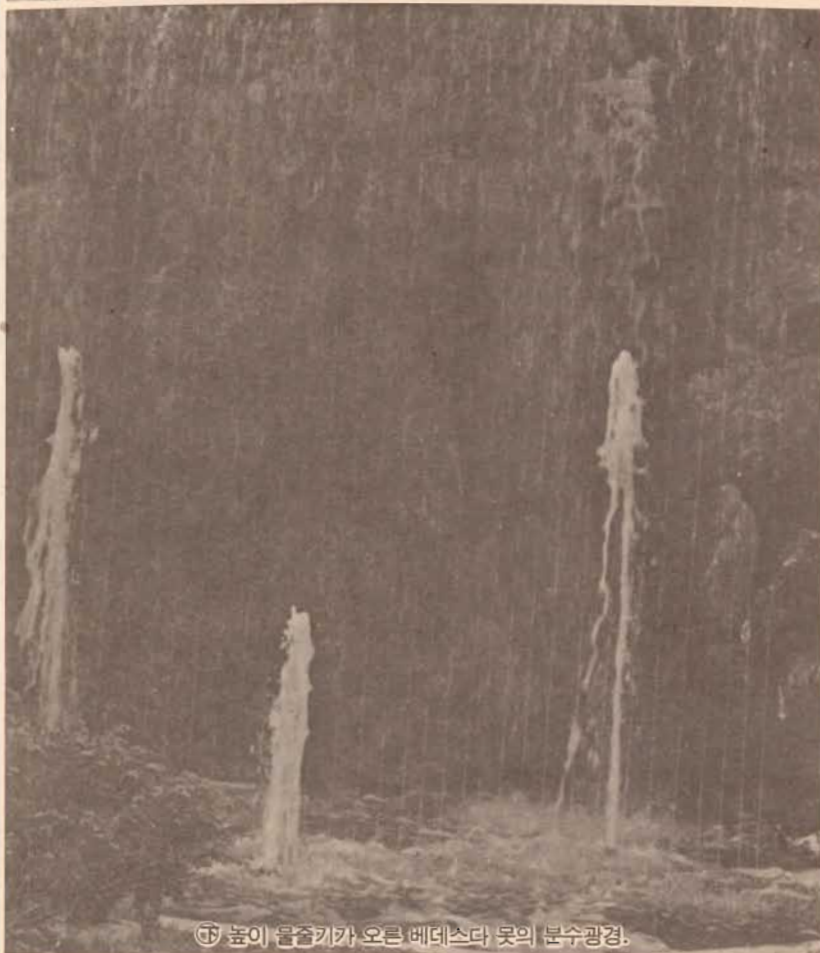
①산호교회(채석칠목사 시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반 1218-2호(바울 13지회에서 월5만원씩)

②행구교회(차정삼목사 시무)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85번지(바울 3지회에서 월5만원씩)

③작은자교회(김동식목사 시무) 강남구 일원동 663-6, (바울5지회와 10지회가 월10만원씩)



▲베데스다못(충현분수대) 분수식이 지난 5일 오후 6시 교회 오른쪽에서 있었다. (가 왼쪽 김창인목사, 위임 이종운목사, 원로 김천준장로, 당회서기 윤명식장로, 그리고 권사회 대표가 컷팅하는 장면.)



㉔ 높이 뿜어올리는 베데스다 못의 분수광경.

카메라초점

대학부 춘계 수련회

주제/ 하나님의 새시대를 열자

목적: 혼탁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고, 영적 각성을 일으켜 새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아울러 대학부와 교회,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 이웃교인들 청년1, 2부, 기타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 요망

일시: 1989년 5월 18~19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장소: 충현교회 잘릴리홀

강사: (첫째날) 이종운목사(본교회 위임목사)
(둘째날) 김영한목사(숭실대학교수)

진행: 1부 7시~7시30분/교제시간

2부 7시30분~8시30분/메시지

3부 8시30분~8시50분/기도회

주최: 충현교회 교회학교 대학부

지 상 강 단

본문 / 에베소서 6장 1~4절

현대 윤리에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절대 변해서는 아니될 진리이다.

무슨 의미로 변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변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고민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변하는 것 속에서 불변하는 것을 찾으며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으며 가변적인 것에서 불가변적 요소를 찾는 것이 현대 윤리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아니될 진리이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노인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개인주의 때문이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부모 자식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둘째는 평등주의 때문이다. 상하의 관계는 점점 수평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뒷사람도 없고 앞사람도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셋째는 현실주의 때문이다. 먼 미래를 전혀 생각지 않고 눈앞에 것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넷째는 실리주의 때문이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철학이라면 계산이 얼마나 빠르지 한치의 양보가 없다. 이러한 철학이 현대인의 마음 속에 꽂차 있어서 효(孝)에 대한 가정윤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①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효는 자기 공로나 선행이 될 수가 없으며 다하고 나서도 내가 효자라는 말을 못하고 침묵하는 법이며 말이 없어야 한다. 다만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것 뿐이며 내가 효를 할만한 부모나 아니냐를 따지고 가려서 섬기는 것은 효라 할 수 없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항상 아버지의 부성애적 사랑과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은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항상 선한 것이며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 방법은 내 마음에 혹시 안맞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③ 이것은 약속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에는 약속의 축복이 담겨있다.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시 1:2) 이 말씀은 양육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식을 탄식하는 말씀인 줄로 안다. 사실 우리가 양육의 은혜를 모른다면 소나 나귀는 여물을 먹고 살며 사람은 고등한 식물을 먹고 산다는 차이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말씀대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부터의 존경 앞서야하며, 순종 겸한 사랑있어야

곧 믿음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 순종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②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이니 부모가 늙었다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마음은 효도가 아니다. 마음에서 부터의 존경이 앞서야 하고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이다. 우리는 그들의 깊은 지혜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젊은이는 이상과 현실은 있으나 과거는 짧고, 지식이 많으나 지혜는 없다. 그들은 평생을 통해서 많은 눈물과 희생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지혜가 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그것은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가정과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명인데 거기에서 첫째되는 계명이 부모공경에 대한 계명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불효는 살인, 간음, 도적질...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행치 않을 때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말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④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자식 편에서 보면 양육의 은혜를 감사하란 말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며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

아 보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대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잘되고 잠수하는 축복이 있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모두 이 말씀대로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갈 것을 간절히 소원한다.

윤용규(목사 · 제13교구 · 교육위 · 새가정부지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26)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합니까?

민주화한다는 정치는 점점 비민주적인 모습만 더해가고, 고도성장한다고 자만하던 경제는 뒷걸음질치고, 안정을 외치던 사회는 폭력과 화염병과 체류탄이 난무하고... 이 나라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

장로칼럼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하대선 (장로 · 기획실 기획담당)

교만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니까. 귀여운 자녀들에 우리는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징조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친히 대답하여 주신 그 고귀한 가르침이, 2천년이 지난 오늘 이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이토록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자가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거의 매일같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사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한 말세의 현상들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양 자랑하

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인양 착각하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7~8)

그리스도 안에서 의 경로효친의 미덕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로회는 우리교회 교인 만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참석 대상이 된다.

이날 경로잔치의 진행은 1부 예배, 2부 식사, 3부 경로회 순서로 청년회원들의 배

위임목사 동정

▲이종윤위임목사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교회 만나홀에서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미래세대의 지도자초청전도활동 노고에 대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9 일(월) 오전 10시, 11시 두 차례에 걸쳐 연세대학교 개교 104주년 기념감사에 초청되어 설교했다.

▲11 일(목) 오후 7시 호텔 · 인터 컨티넨탈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동문회 주최로 연대총장 및 교무위원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4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설교했다.

레, 유치부, 영아부 아기들의 특선,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 장기자랑, 장수상 시상 등이다.

이 행사를 위하여 준비를 위한 조직이 완료되었다.

▲고문: 오태희, 김준태, 김익경, 손경수, 윤광일, ▲지도: 김환기, 박영엽, 양종섭, 손명순, ▲준비위원장: 원성수, 홍윤석, ▲기획위원: 원성수, 오효근, 한영주, 백남식, 이양선, 천숙영, 홍윤석, 한천연, 이민선, 박태근, 이미란, ▲식사담당: 박숙영, 박유자, 천숙영, 우영안, 정영자, ▲간식담당: 김성국, 이양선, ▲환경담당: 김명희, 우은미, ▲홍보담당: 한덕주, 최영인, 백남식, 박태근, ▲촬영담당: 오효근, ▲기념품담당: 천숙영, ▲안내: 청년1, 2부 여자회원, ▲봉사: 청년1, 2부 전회원.

제23회 경로회

5월 27일(토) 12시 소석관서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1부, 2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23회 경로잔치가 오는 5

월 27일(토) 낮12시 소석관 2층 유치부실에 개최된다.

교회당 주변을 깨끗이 하자

버린휴지 줍는마음, 교회비품 소중하게 사용토록

충현 예배당(본당)을 완공하여 헌당한지 5개월이 되었다.

지상교회의 훌륭한 면모가 환경미화 덕택으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미려하게 나타나, 예배당 뜰을 밟는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본당 오른쪽(소석관 앞) 부분에 새로 설치된 베데스다못(충현분수대)은 돌과 아스팔트의 삭막한 기분을 한결 조화있게 꾸며져, 보는 기쁨, 듣는 기쁨, 대화를 건널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성도들의 헌수헌금으로 교회당 주변은 갖가지 나무와 꽃들로 초원의 광장처럼 느끼게 되는 우리 충현교회는 아가서의 표현처럼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멋진 교회당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의 교회당 시설과 교육관, 선교관 주변에 휴지를 함부로 버리고, 주보나 각종 유인물 등이 꾸겨서 구석구석에 널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도 개인 개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휴지를 줍고 널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더욱 아름답고 오래 보존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당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 버린 휴지 줍는 마음, 그리고 교회비품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었으면 한다.

가정의 달 특강마련 새가정부

새가정부(부장/박승준 장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 달 특강을 오는 5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년엔 더욱 성숙되어가는 모든 충현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정의 경건생활」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본교회 협동목사인 정규남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학장대리·구약학)의 강의를 듣게된다.

새가정부는 특강을 통해 과연 우리 가정의 경건생활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어떻게

개 우리 가정의 경건생활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등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 각성을 다시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현의 성도 누구나 참석을 바라고 있다.

교회 인사·이동

▲본교회 부목사 마일수목사를 89년 6월 4일부로 영어예배 지도교역자로 임명.

▲교회사무국 서봉순양의 경리직을 면하고 89년 5월 7일부로 전산요원으로 임명.

▲초등부 찬양대 지휘자로 이정림(여)씨를 임명, 이정림씨는 이화여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정신여자중학교 음악교사이다.

▲임춘식집사 사무국관리과 운전기사직(4월 1일부)

▲김창수, 박용준: 사무국관리과 미화부(4월 1일부, 5월1일부)

원고모집

「주간충현」은 성도 여러분들의 원고를 수시로 접수합니다.

매주일 오후6시까지 「주간충현」편집국(소석관 115호)으로 보내 주십시오.

충현 프리즘

☆에바다부에서 자원봉사할기사는 없는지요?

본교회 교회학교 에바다부(부장: 박인세장로)는 매주일 학생들의 교회출석을 위해 차량운전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사를 원하고 있다.

차량은 준비되었으나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 교회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뜻이 있는 분은 에바다부로 연락주시기를...

☆차량주차에 적극 협조를 우리교회는 교인 팽창으로 매주일마다 승용차 댓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 차량관리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차량통행, 주차,

안내, 통제에 심혈을 기울여 차량질서를 잡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도 주차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일 오전엔 무질서한 면이 많이 있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질서의식을 지켜 「민주교인」의 존경을 받도록.

☆교회식당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혔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따라 매주일 사용하고 있는 교회식당(만나홀)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졌는가하면,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여러 기관의 회원들이 친히 자원봉사로 나서 열심히들 해준 보람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모두들 다정한 인사를!

주일예배나 수요일 예배시 집회가 끝나면 위임목사는 본당 현관까지 나가 귀가하는 성도들에게 일일히 인사를 한다.

충현교회 위임목사로 취임 이후 한번도 이러한 인사를 거른 적이 없다.

성도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방법을 교훈하는 본보기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진다.

우리교회가 워낙 큰터도 있겠지 만, 무관심한 표정의 성도들을 대할 때 멋적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받는등 마는등 확지나가는 교우도 간혹있다. 안타깝다.

주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충현의 교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다정한 인사로 기쁨을 나누어 봄이 어떨른지.

☆안수집사 모임 더욱 활성화 되기를

우리교회는 안수집사가 56명이 나 된다. 모두들 각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열심히들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주일엔 서로 만나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어느 안수집사는 실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쁠수록 서로 만나고 모이는 일에 더한층 힘을 내고 애쓰는 의지를 살려 교회 부흥성장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안수집사들이 모범적으로 활동해주었으면"하는 바램을 하고 있다.

생활법률 상담

오늘부터 본당 404호실

충현법조인 선교회에서는 이번주부터 매주일 정오 12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본당 404호실에서 성도들을 위해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전국 운전기사 복음화대회

5월 31일 오후1시 본교회 갈릴리홀에서

한국 운전기사 선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 운전기사 복음화 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후1시 본교회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5백 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복음화대

회의 주강사는 이종운목사(본교회 위임목사)이다.

한편 본교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주기로 했다.

탁아부 부모초청 좌담회

초대의 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사랑하셔서 탁아부를 개설케 하시고 어린이를 돌보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들이 경건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배려와 좋은 시설로 탁아할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현교회 유아들과 부모들은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협조로 어린이들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번 탁아부에서 유아들을 탁아할 필요성에 대한 부모초청 좌담회 및 초청 잔치를 위임목사를 모시고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탁아부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9년 5월 17일 12시 30분

장소: 베들레헬홀

강사: 이종운 위임목사

충현교회 교회학교 탁아부
부장 정운석 장로

• 이모저모 •

한나 제4지회 지원처 봉덕교회

우리 한나 제4지회(회장: 방계운권사)는 지난 4월 25일 개척교회 지원처인 봉덕교회(전남 연인군 도포면 덕하2구 소재)를 방문했다.

그동안 봉덕교회(박재호전도사 시무)를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대지 222평을 봉덕교회에서 매입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 한나4지회 전회원은 기도하면서 건축헌금을 한 결과 1백 20만원이 헌금되었다.

회장 방계운 권사 외 7명의 임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전 6시 35분 이종윤 위임목사의 기도를 받고 교회를 출발, 오후 1시에 봉덕교회에 도착했다.

봉덕교회 박재호전도사와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현재 교회로 사용하는 조그마한 방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간 건축헌금과, 주일학교 전도용(공책, 연필, 지우개) 선물을 드렸다.

봉덕교회는 현재 장년교인 수 20명, 주일학교 수 30명이다.

우리 한나4지회 회원일동은 새로 마련된 대지 위에서 봉덕교회 성도들과 함께 손을

“새예배당 건축위해 특별기도 부탁”



△ 한나 4지회 회원들이 봉덕교회를 찾아 건축헌금 1백20만원을 전달했다.

그곳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들면서 박재호 전도사의 교회건축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전도사는 교회당 건축대지 222평을 농협에서 대출해서 샀고, 건축비는 약 2천만원 예산으로 교회당 건평 40평, 사택 20평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맞잡고 간절한 심정으로 “덕하2구에 사는 주민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마을이 되기를” 기도했다.

전남 덕하 2구에 있는 봉덕교회를 위해 전교인들의 기도부탁을 요청한다.(한나 제4지회 제공)

되는군요.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뭔가 하나 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생각만 했던 것을 매번 어버이 날에 느꼈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자 합니다.

부모님!
그간 저를 위해서 애쓰신 것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는군요.

부모님!
제가 6학년에 올라와서 믿음의 딸로서 더욱더 활기차고 공부잘하는 것을 바라시지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공부 잘하고 말 잘듣는 부모님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드리면서 좀더 성숙된 둘째딸 「신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부다 몸건강하시길 신애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주후 1989년 5월 3일
부모님의 둘째 딸 신애 올림

어버이주일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나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께

따뜻한 봄햇살과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초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창밖에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고 꽃가루가

가볍게 세상을 구경하는 이날...

저는 부모님(손경수장로, 이복희집사)의 고마움을 세상에서의 풍선처럼 하늘로 두둥실 띄워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철없었던 제가 오늘날은 부모님의 고마우심을 새삼 느끼게



손신애
(소년부 6-13반)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5월 19일(금)
제20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 딤후 3:15-17

요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찬송: 241, 236, 235

성경은 어떤 책이며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16)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원과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해 줍니다. 즉 성령께서 성경기록자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도하는 데 기록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와 문체가 마음에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2.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15-17)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두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3.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교리나 행위, 그리고 거짓을 밝혀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므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시 19:7-8)?
2. 성경(예언)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책입니까?(벧후 1:21)?
3.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행 17:11)?
나의 말씀생활은 어떠합니까?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